



### 민화협 강화도평화·통일 역사기행에 참가하고

김 윤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자포럼 회장

칼럼

11월 26일(토), 제법 쌀쌀한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과 함께하는 통일·역사기행, '역사 속을 걷다 평화를 향해 달린다'를 주제로 내건 강화도 평화·통일 역사기행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말지 않은 거리에 시내버스가 있지만 택시를 타고 월계역에 내렸다. 월계역사(月溪驛舍) 안으로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만이 아는, 나를 부르는 까치 소리가 크게 났다. 택시에서 내려서 들어온 쪽 역사 창문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까치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반대 방향 밖 전신주와 전신주 꼭대기에서 두 마리가 나를 바라보며 소리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전신주 꼭대기 거느리란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로 균형을 잡으며 소리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손을 흔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다. 내가 일부러 움직여서 보이지 않게 되자 까치는 날아갔다. 얼마전에도 들어온 병향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소리하는 까치를 한참 바라본 일이 있다. 까치는 영물(靈物)이다.

서울시청역에서 내려서 서울시의회 앞에서 관광버스 두 대로 출발했다. 김포시 월곶면 내포리에서 강화도 강화읍 갑곶리로 연결하는 길이 780m 연륙교인 강화대교를 건너서 먼저 찾은 곳은 연미정(燕尾亭)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강화도 동북단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흐르는데, 그 모양이 제비 꼬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으로 북한 개풍군과 파주시, 남으로 김포시가 흐릿한 날씨에 어렵게 보였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쪽 땅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다. 3km 강 건너서 예성강이 흐르고 우측으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김포 얘기봉 전망대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산신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망원경으로도 흐릿했다. 좌측으로는 중립지역인 나들섬과 북한 연백군으로 북한 주민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멀리 개성공단 탐과 송악산도 그림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강 건너 북한 산과 마을, 사람들이 보이고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서 어디서 왔나고 묻지 않고 소리없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통일을 염원하는 쪽지들이 수북이 붙혀져 있는 통일 염원소를 보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비극의 현장 진도 팽목항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현장 이태원역을 방문해서 느꼈던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다. 이 뜨거운 염원들이 현실이 될 날은 언제나 찾아올 것인가.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밖으로 나와서 추석 같은 명절 때, 실랑민들이 북쪽에 계시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향하여 차례(茶禮)를 지내는 망배단(望拜壇)과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를 보았다. 금강산 길도, 개성가는 길도, 평양가는 길도 모두 막혀버린 지금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 왔다. 이곳에서도 북한 땅이 강 건너 지척에서 보였다.

2014년 개통된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길이 2.11km의 교동대교(橋樑大橋)를 지나서 교동도(橋樑島)를 찾았다. 교동도는 강화도 서북부 최북단 접경지역이어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귀신 잡는 우리 해병이 지키고 있다. 6·25전쟁 난리 통에 나룻배 타고 잠시 피난왔다가 어언 70년이 흘러갔어도 고향 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한(恨) 맺힌 실랑민 집성촌이다.

두고 온 고향 황해도 연백군의 연백시장을 본떠 만들었다는 골목시장이 대룡시장을 둘러보고, 조그마한 대포집에 들어가서 함께 간 일행들과 녹두전에 싹막걸리를 한 잔 했다. 교동도에서 나는 새우젓같이 하도나 맛있게 보여서 한 통 사가지고 왔다.

교동도의 제비집은 어느 곳의 제비집과 다르다. 저기 보이는 연백평야 등 고향 흙을 제비가 몰아다가 처마 밑에 짓는 제비집에는 고향 땅에 계시는 부모님 얼굴이 있고 자식들과 형제자매들의 웃음이 있다고 실랑민들은 생각했다. 교동 제비집은 피난 나온 실랑민들의 위안과 기쁨이 되고 있다.

물고기들과 새들만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북백 산하를 바라보는 마음은 통일문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씩 그리 밝은 편이 아니었다. 몇 차례 다녀온 강화도이지만 갈 때마다 감회가 다른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는 역사의 주체요, 역사 진보의 원동력인 위대한 우리 민중을 굳게 믿는다. 수천년 피투성이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낸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위대한 우리 민중은 반드시 통일대업을 이루고 선진민주국가로 세계 속에 우뚝 설 날이 올 것이다.

### 소방차 길 터주기

기고

### 누군가에겐 생명의 길

김 학 성 완도소방서 고금119안전센터장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짧다. 현장 도착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모두 담겨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분 내외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과 더불어 소생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설사 생명을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긴박한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상에서 운전 중 소방차나 구급차 등 출동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한다.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한다.

소방차, 구급차의 사이렌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속도를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부터 살펴라, 그리고 위 요령대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

최근에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긴급환자가 소생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언론에서 화자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이런 국민들의 노력과 각 소방관서의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힘을 합한다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음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서민 경제 위협하는 보이스포싱,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기고

김 재 록 나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속됐던 경제 상황을 겨우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 속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기 범죄가 기승이다.

사기 범죄는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포싱으로 알고 있는 전자통신금융사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차용 사기, 투자사기, 중고-위조품거래사기 등 여러 가지 변종 수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대표적인 피해 유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범죄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전화 또는 문자로 검·경찰을 사칭하여 접근, '원격 앱 설치 유도'하는 것이 보이스포싱의 대표적이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둘째, 은행을 사칭해 한도는 높고 저금리 상품이 있다며, 누구나 유혹 당할 말로 접근하여 대출 방법조차 아주 간단한 것처럼 '대출상품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유형이다.

셋째, '가족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해 메시지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여



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중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유형인데,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잘 속게된다.

위와 같은 대표적인 보이스포싱 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이스포싱 범죄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은 대부분 비슷한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공공기관이라며 자금 또는 사건을 해결할 금액 이체 요구하거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문자로 발송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접속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한 전화나 문자는 절대 믿지 않는 습관을 갖고, '경찰청 사이버법', '시티즌 코난', '피싱 아이스' 등 앱을 다운받아 국민 스스로가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